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가 이끈 증시 최고치 경신

- 주요 지수 모두 상승: S&P500, 나스닥 최고치 경신
- 7월 CPI 상승률이 2.7%로 예상치 하회,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
-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및 임박한 금리 인하가 증시 강세 이끌어

Summary

미국 증시는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강세 마감함.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1.13%와 1.39% 상승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함.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10% 상승한 44,458.61에 거래를 마쳤고, 러셀2000 지수는 중소형주 강세가 지속되면서 2.99% 급등했음. 이번 CPI 발표에서는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타나 투자 심리를 개선했음. 특히,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며 장기 인플레이션 우려를 억제하는 신호를 보였음. 이러한 경제 지표들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함. 실제로 시카고상품거래소의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약 94%로 반영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높은 물가 압박을 주고 있지 않다는 진단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금융, 산업, 소재 등 다양한 업종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됨.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1.2% 상승했고, 반도체 관련주로도 매수세가 집중되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임. 엔비디아는 트럼프와의 회동 소식 이후 주가가 반등했으며, 인텔도 CEO가 백악관을 방문한 후 주가가 오름세를 기록함.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들도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감.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및 추가 경제 지표 발표를 기다리며 향후 시장 흐름을 주시할 것으로 보임. (다우 +1.10%, 나스닥 +1.39%, S&P500 +1.13%, 러셀2000 +2.99%)

특징종목

메타 플랫폼스(+3.2%)은 AI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한 29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함. 이러한 자금 조달은 회사의 장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유나이티드 항공(+10%)은 인플레이션 보고서와 호실적 발표로 주가가 급등했으며, 델타 항공(+9.2%)도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힘입어 주목받음. 애플 PLC(+7.4%)는 긍정적인 애널리스트 전망과 미국 교통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함. NXP 반도체(+7.3%)는 새로운 AI 중심 i.MX 95 프로세서의 출시에 따라 주가가 상승했으며, 빌더스 퍼스트소스(+6.8%)는 이중 상장 효과에 힘입어 주가가 올라 금융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강화함. 테라다인(+6.6%)은 차세대 메모리 테스트 출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상승했음. 온세미컨덕터(+6.2%)는 반도체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과 기술 발전 기대가 주가를 상승시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5.8%)는 강력한 매출 성장과 기술 기반 강화로 인해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음.

반면, 카디널 헬스 (-7.2%)는 최근 발표된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며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음에 따라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겪음. 또한 \$1.9B 규모의 솔라리스 인수

발표가 있었지만,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CME그룹 (-3.2%)은 회사 내부자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이 잠재적 약세 신호로 해석되면서 주가가 하락함. 장기 투자자들의 지분 감소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엑손 엔터프라이즈 (-6.1%)는 성장 둔화와 가치 평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 섹터에서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회사의 주가가 과대 평가됐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가에 추가 악재로 작용함. 이러한 하락세는 해당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와 시장의 불확실성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게 만든 것으로 보임.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29%로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음. 이는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된 영향임. 미국 달러 인덱스(DXY)는 98.06으로 하락하며, 7월 말의 두 달 최고치 100에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임.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증가와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유로/달러 환율은 1.17로 미세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는 유럽 경제의 상대적 회복 기대감과 맞물려 있음. 상품 시장에서는 WTI 원유가 63.08달러로 하루 동안 1.38% 하락했으며, 이는 지난 주의 하락세를 그대로 이어간 것임. 반면 금(gold)은 온스당 3347.75달러로 소폭 상승하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안전 자산으로의 수요가 꾸준함을 시사함. 주요 에너지 상품 중 천연가스 가격은 5.85% 급락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음. 이와 달리 농산물 가격에서는 대두가 1.52% 상승하며 지난 주 상승세를 지속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